

## 한국어 음운규칙 적용의 한계와 그 대체 기제\*

최 명 옥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이 글은 2004년도에 제25회 청계어학연구회(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한국학대 학원)와 제7회 환태평양 한국학 국제 학술대회(대만 중국문화대학교)와 서울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학술발표회 및 제38회 어학연구회 발표회(서울대 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구두로 발표된 바 있다. 청계어학연구회 발표에서는 황 문환 교수가 곡용에서의 특수한 음운과정을 지적해 주었고, 두 번째와 세 번 째 발표에서는 이상익 교수가 음운과정 후에 실현되는 몇 가지 음성형에 대해 지적해 주었다. 앞의 두 분과 각 발표회 때에 토론에 응해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아울러 『인문논총』에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글을 세밀하게 읽고, 보 다 명료하고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익한 조언을 제 시해준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주 제 어: 규칙 적용의 한계, 대체 기제, 어간말 자음소 탈락, 의무적 규칙, 기저형, 어간의 어휘적 의미, 어미의 문법적 의미  
the limit of rule application, alternative mechanism, stem final consonant deletion, obligatory rules, underlying representation, the lexical meaning of stem, the grammatical meaning of ending

## 1. 서론

음운규칙에는 임의적규칙과 의무적규칙이 있다. 임의적규칙은 해당 환경에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규칙이며 의무적규칙은 해당 환경에 반드시 적용되는 규칙이다. 한국어의 경우, 다음 (1)의 자료에 적용되는 ʃ 삽입규칙이나 ʃ 활음화규칙은 임의적규칙이며 (2)의 자료에서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어미 초의 'u'가 탈락되는 규칙은 의무적규칙이다.

- (1) ① /kiʃʌ/ /kiʌ/ → [kiʌ](匍)  
 ② /kiʃʌ/ -(ʃ삽입) → /kijʌ/ → [kijʌ]  
 ③ /kiʃʌ/ -(ʃ활음화) → /kʲiʃʌ/ → [kʲiʃʌ]
- (2) /kaʃumjʌn/ -(u탈락) → /kamjʌn/ [kamjʌn>(\*[kaʃumjʌn])(去)  
 cf. /makʃumjʌn/ → /makʃumjʌn/ → [magʌumjʌn](防)  
 /sinεʃulo/ -(u탈락) /sinεlo/ → [einε.ro](市內)  
 cf. /čipʃulo/ → /čipulo/ → [ʃibʌ.ro](家)

그러나 한국어의 음운과정에는 이들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인데도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3)의 자료에서 보듯이, 의무적 규칙인 'h' 탈락규칙이 적용되면 다시 의무적규칙인 어미 초의 'u' 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이 경우에 'u' 탈락규칙이 적용되면 음성형은 [namjʌn]이 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 실현되는 일반적인 음성형은 [naʃumjʌn]이거나 [namjʌn]이다. 이 사실은, (3)의 경우에, 어간 말의 'h'가 탈락된 뒤에는 어미 초의 'u'가 탈락될 환경이 되어도 그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 (3) ① /nahʃumjʌn/ -(h탈락) → /naʃumjʌn/ → [naʃumjʌn]  
 ② /nahʃumjʌn/ -(h탈락) → /naʃumjʌn/ → /naamjʌn/ → \*[na:mjʌn]

③ /nah]uɱmjʌn/ -(h탈락) → /na uɱmjʌn/ → \*/namjʌn/ → \*[namjʌn](産)

(3)의 ③에서와 같이, 의무적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 규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를 ‘음운규칙의 적용 한계’라고 규정하고 그 경우에, (3)의 ①과 ②에서와 같이, 어간 말의 ‘h’가 탈락된 뒤에 다시 어미 초 ‘u’가 탈락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더 이상의 음운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어미 초의 ‘u’가 어간 말음절의 모음소에 완전순행동화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음운규칙의 적용 한계에 대한 대체 기제’이라고 규정한다.

이 연구는 한국어에서 음운규칙의 적용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와 그 대체 기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한국어의 음운과정에 적용되는 의무적규칙과 임의적규칙

한국어의 음운과정에 적용되는 의무적규칙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경음소화규칙, 유음소 ‘ㄹ’ 탈락규칙, 후음소 ‘h, ʔ’ 탈락규칙, 어미 초 개음절 ‘u’ 탈락규칙, 어미 초 폐음절 ‘u’ 탈락규칙과 어간 말 ‘a, ʌ, u’ 탈락규칙 등이다. 그리고 음운과정에 적용되는 임의적규칙이거나 의무적규칙에는 활음소화규칙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 의무적규칙과 임의적규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 2.1. 경음소화규칙

한국어에서 경음소화란, (4)에서 보듯이, 평파열음소화나 자음소군단순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미 초의 평자음소가 어간 말의 평자음소나 비음소(鼻音素) 뒤에서 경음소로 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 (4) a. ① /čip]to/ → /čipt'o/ → [tʃipt'o](家),  
 /ap<sup>h</sup>]to/ → /apto/ → /apt'o/ → [apt'o](前)  
 ② /nat]to/ → /natt'o/ → [natt'o](粒),  
 /pat<sup>h</sup>]to/ → /pattp/ → /patt'o/ → [patt'o](田),  
 /nas]to/ → /natt'o/ → [natt'o](鎌),  
 /nač]to/ → /natt'o/ → [natt'o](晝)  
 ③ /kaps]to/ → /kapt'o/ → /kapt'o/ → [kapt'o](價)  
 b. ① /čap]ko/ → /čapk'o/ → [tʃapk'o](執),  
 /tΔp<sup>h</sup>]ko/ → /tΔpko/ → /tΔpk'o/ → [tΔpk'o](覆)  
 ② /tat]ko/ → /tatk'o/ → [tatk'o](閉)  
 ③ /us]ko/ → /uɾtk'o/ → [uɾtk'o](笑),  
 /č'oč<sup>h</sup>]ko/ → /č'otko/ → /č'otk'o/ → [tʃ'otk'o](迫)  
 ④ /paɾp]ko/ → /paɾpk'o/ → /paɾpk'o/ → [paɾpk'o](踏)  
 c. /him]to/ → [çimdo](力), /non]to/ → [nondo](番),  
 /kaɾ]to/ → [kaɾdo](江)  
 d. /su:m]ko/ → /su:mk'o/ → [su:mk'o](隱),  
 /a:n]ko/ → /a:nk'o/ → [a:nk'o](抱)  
 e. ① /pul]to/ → [puldo], /pul]pota/ → [pulboda],  
 /pul]č'oč<sup>h</sup>a/ → [puldʒo tʃ<sup>h</sup>a](火)  
 ② /mal]ko/ → [malgo], /mal]tΔla/ → [maldΔra],  
 /mal]č'i/ [maldʒi](捲)

1. 이러한 경음소화는 곡용과 활용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곡용에서는 어간 말 자음소가 'p, t, k' (평파열음소화나 자음소군단순화 과정을 거친 다음)일 때에 그 뒤에서 일어나며, 활용에서는 어간 말 자음소가 'p, t, k, n, m' 일 때에 그 뒤에서 일어난다. 한편 곡용과 활용에서 어간 말이 'l' 인 경우에는 결코 그 뒤에서 어미 초 평자음소의 경음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음소화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규칙은 해당 환경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C, -asp(irated)] [+glot(talized)] /  $\left\{ \begin{array}{l} X[C, -low, -nasal] N \_\_\_\_ Y \dots (a) \\ X[C, -low] Vst \_\_\_\_ Y \dots\dots\dots (b) \end{array} \right.$

【어미 초의 평자음소는 (a)곡용의 경우, 어간 말의 ‘ㅂ, ㄷ, ㄱ’ 뒤에서, (b)활용의 경우, 어간 말의 ‘ㅂ, ㄷ, ㄱ’ 와 비음소 뒤에서 각각 경음소화한다.】

## 2.2. 유음소 ‘l’ 탈락규칙

한국어에서 유음소 ‘l’ 탈락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제약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나는 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절구조 제약에 의한 것이다. (5a, b)와 (5c)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5) a. /pu:l]u:ni/ → /pu:ni/ → [pu:ni],  
       /pu:l]u:nik’a/ → /pu:lnik’a/ → /pu:nik a/ → [pu:nik’a](吹)
- b. /pu:l]usi]ko/ → /pu:lsiko/ → /pu:siko/ → [pu:eigo](吹)
- c. /pu:l]u:mnita/ → /pu:lmnita/ → /pu:mnita/ → [pu:mnida],  
       /pu:l]u:n/(사람) → /pu:ln/(사람) → /pu:n/(사람) → [pu:n](사  
       람)(吹)

먼저(5a, b)에서의 ‘l’ 탈락이 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것임은 어간 말의 ‘l’가 어미 초의 ‘n’와 ‘s’ (어미 초 ‘u’가 탈락한 뒤에 남는 어미 초의 ‘n’나 ‘s’ 포함) 앞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nalkɛ/ → [nalgɛ](翼), /kalpi/ → [kalbi](肋骨), /hanminčok/ → [hanmindʒok](韓民族); /non]to/ → [nondo](雀), /čalm]ato/ → [ʧalmado](少) 등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경우, 두 모음 사이에서 두 개의 자음이 충분히 발음될 수 있다. 그런데 두 모음 사이에서 유독 ‘ln’와 ‘ls’만이 함께 발음되지 못하고 ‘l’가 탈락된다. 이것은 그들 두 자음소 상호간에 작용하는 음운론적 제약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sup>1)</sup>

다음으로 (5c)에서의 'l' 탈락이 음절구조 제약에 의한 것임은 'l'가 어미 초의 'u' 탈락 뒤에 형성된 음절 말 자음군 'lm'와 'ln'의 단순화에 의해 탈락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에서 음절 말에서는 하나의 자음소만이 발음될 수 있으므로, (5c)에서의 'l' 탈락은 음절구조 제약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두 종류의 'l' 탈락 중 여기서 말하는 'l' 탈락은 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것을 말하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규칙은 해당 환경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 voc(atic), + cons(onantal)] → ø / X \_\_\_\_ ] { [+ ant(erior), + cor(ona)], + nasal], [+ ant, + cor, - glot, + str(ident)] } Y [이 규칙은 어미 초의 'u' 탈락 뒤에도 적용됨]
- 【어간 말의 'ㄹ'은 어미 초의 'ㄴ'나 'ㅅ' 앞에서 탈락한다.】

### 2.3. 후음소 'h, ʔ' 탈락규칙

후음소 'h, ʔ' 탈락이란 음운론적 제약이나 음절구조 제약에 의해 어간 말의 후음소 'h, ʔ'가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어에서 'h'나 'ʔ'로 끝나는 어간은 동사에만 있고 명사에는 없다. 어간 말의 'h'는 모음소와 'l', 'n' 뒤에 존재하며 'ʔ'는 모음소와 'l' 뒤에 존재한다. 어간 말의 'h'나 'ʔ'는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탈락하지만, 'l'나 'n' 뒤의 어간 말 'h'나 'ʔ'

- 
- 1) 이때의 음운론적 제약은 두 자음소 'l'와 'n', 'l'와 's'가 동일한 조음위치에서 서로 다른 조음방법으로 조음되는 데에서 생기는 발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ln/나 /ls/에서 'l'가 탈락되지 않으면 각각 /ll/이 되고 /ls'/가 되는데, 이로 인한 어미 초 'n'와 's'가 가지는 '이유표시'나 '존대표시'라는 문법적 의미 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cf. / [[pul]<sub>N</sub> [[noli]<sub>N</sub>]<sub>N</sub>/ → /pulloli/ → [pullo i](火戲),  
/ [[il]<sub>N</sub> [[so]<sub>N</sub>]<sub>N</sub>/ → /iils'o/ → [iils'o](事牛)

는 모음소는 물론 유기음소를 대립쌍으로 가지지 않는 자음소 즉 'n' 나 's' 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탈락한다. (6)의 예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6) a. ① /čɔ:h]ʌto/ → /čɔ:hato/ → /čɔ:ato/ → [tʃo:ado],  
       /čɔ:h]umj n/ → /čɔ:umj n/ → [tʃo:umjʌn]  
       cf. /čɔ:h]ko/ → /čɔ:kʰo/ → [tʃokʰo](好)  
       ② /či:ʔ]ʌto/ → /či:ʔato/ /čiʌto/ → [tʃiʌdo],  
       /či:ʔ]umjʌn/ → /či:ʔumjʌn/ → /čiʌumjʌn/ → [tʃiʌumjʌn]  
       cf. /či:ʔ]ko/ → /či:k'o/ → [tʃi:k'o](作)
- b. ① /ma:nh]ʌto/ → /ma:nhato/ → /ma:nato/ → [ma:nado]  
       ② /ma:nh]mjʌn/ → /ma:numjʌn/ → [ma:numjʌn]  
       ③ /ma:nh]ni/ → /ma:nni/ → [ma:nni]  
       ④ /ma:nh]so/ → /ma:nso/ → /ma:n's'o/ → [ma:n's'o](多)  
       ⑤ /si:lh]ʌto/ → /silhʌto/ → /silʌto/ → [eiʌido]  
       ⑥ /si:lh]umjʌn/ → /silhʌumjʌn/ → /silʌumjʌn/ → [eiʌumjʌn]  
       ⑦ /si:lh]ni/ → /si:lni/ → /si:lli/ → [eiʌʌi]  
       ⑧ /si:lh]so/ → /si:lso/ → /si:l's'o/ → [ei:l's'o](載)<sup>2)</sup>

이 경우의 'h' 탈락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6a)와 (6b①②, ⑤⑥)에서의 'h' 나 'ʔ' 탈락은 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것이고 (6b③④, ⑦⑧)에서의 'h' 나 'ʔ' 탈락은 음절구조 제약에 의한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될 'h' 탈락규칙은 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h' 탈락을 지배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규칙은 해당 환경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C, + low] → ø / X([+ cons, + voiced]) \_\_\_\_ ]VY

2) 표준 한국어 동사 'sit-(載)' 은 주로 현대 음장방언에서는 'si:lh-' 로, 현대 성조방언에서는 'silʔ-' 로 재구조화되었다. 그러므로 음장방언의 'si:lh-' 은 위의 경우에 'h' 탈락이 일어난다.

【어간 말(유성자음소 뒤의 어간 말도 포함)의 ‘ㅎ’ 나 ‘ㅇ’는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 2.4. 어미 초의 개음절 ‘ㄹ’ 탈락규칙

한국어에서 어미 초의 개음절 ‘ㄹ’ 탈락은 모음소나 유음소 즉, [+voc]을 가지는 형태음소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어미 초의 개음절 ‘ㄹ’가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7)에서 보듯이, 이 음운과정은 곡용과 활용에서 모두 일어난다.<sup>3)</sup>

- (7) a. ① /čip]uɾo/ → /čipuɾo/ → [ʃibuɾɐɾo](家)  
 ② /si:nɛ]uɾo/ → /si:nɛɾo/ → [ci:nɛɾo](市内)  
 ③ /tu:ɾ]uɾo/ → /tu:ɾɾo/ → [tu:ɾɾo](野)
- b. ① /mak]uɾmjɛn/ → /makuɾmjɛn/ → [maguɾmjɛn](防)  
 ② /ka]uɾmjɛn/ → /kamuɾmjɛn/ → [kamjɛn](去)  
 ③ /pu:ɾ]uɾmjɛn/ → /pu:ɾmjɛn/ → [pu:ɾmjɛn](吹)

어미 초의 개음절 ‘ㄹ’ 탈락을 지배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규칙은 해당 환경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V, + high, + back, - round] → ø / X[+ voc] \_\_\_\_\_ σ [σ = 음절]
- 【어미 초에서 개음절을 이루는 ‘ㅇ’는 어간 말의 모음소나 유음소 뒤에서 탈락한다.】

3) 지역어에 따라서, 활용의 경우, 어간 말의 ‘l’ 뒤에서 어미 초의 ‘ㄹ’가 탈락하지 않기도 한다.

예. /pul]uɾmjɛn/ → /puluɾmjɛn/ → [puɾuɾmjɛn], /pul]si]uɾni/ → /pulusini/ → [puɾuɾcini](吹)



## 2.5. 어미 초 폐음절 ‘w’ 탈락규칙

어미 초 폐음절 ‘w’ 탈락이란 관형사형어미 ‘-un’과 ‘-ul’에서와 같이 폐음절을 이루는 ‘w’가 모음소나 유음소 즉, [+voc]을 가지는 형태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통합할 때에 탈락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8)에서 보듯이, 이 음운과정은 활용에만 존재한다.

- (8) a. ① /ka]un/(사람) → /kan/ → [kan]  
 cf. /ka]ko/ → [kago](去)  
 ② /pu l] un/(사람) → /pu:ln/ → /pu:n/ → [pu:n]  
 cf. /pu:l]ko/ → [pu:lgo](吹),  
 ③ /mant ul] un/(사람) → /mantuln/ → /mantun/ → [mandun]  
 cf. /mant ul]ko/ → [mantulgo](作)  
 a'. /mak]un/(사람) → /maku:n/ → [magun](防)  
 b. /tu:l]un/ → /tu:ln/ → [tu:ɾun](野)  
 cf. /tu:l]un/ → \*/tu:ln/ → \*/tu:ɾn/ → \*[tu:ɾn] (野)  
 b'. ① /čip] {n-ø} un/ → /čipun/ → [tʃibun](家)  
 ② /si:nɛ {n-ø} un/ → /si:nɛnun/ → [ci:nɛnun](市內)

따라서 어미 초 폐음절 ‘w’ 탈락을 지배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규칙은 해당 환경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V, +high, +back, -round] ø / X[+voc] V<sub>st</sub> \_\_\_\_ C(σ)
- 【활용의 경우, 어미 초에서 폐음절을 이루는 ‘w’는 어간 말의 모음소나 유음소 뒤에서 탈락한다.】

## 2.6. 어간 말 ‘a, ʌ, w’ 탈락규칙

어간 말의 ‘a, ʌ, w’ 탈락이란 ‘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어간 말

의 ‘a’나 ‘ʌ’, ‘u’가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음운과정은, (9a)에서 보듯이, 곡용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곡용의 경우에는 어간 말의 ‘a’나 ‘u’가 탈락하는 대신 어간과 어미 사이에 ʝ가 삽입된다.

- (9) a. ① /jʌŋča]a/ → /jʌŋčaja, \*jʌŋča/ → /jʌŋčaja, \*jʌŋča/ →  
 [jʌŋčaja, \*jʌŋča]  
 cf. /jʌŋča]to/ → [jʌŋčado](人名)
- ② /čõŋsʌ]a/ → /čõŋsʌja, \*čõŋsʌʌ/, / → /čõŋsʌja, \*čõŋsʌ/ →  
 [čõŋsʌja, \*čõŋsʌ]  
 cf. /čõŋsʌ]to/ → [čõŋsʌdo](人名)
- ③ /pesu]a/ → /pesuʝja, \*pesa/ → /pesuʝja, \*pesa/ →  
 [pesuʝja, \*pesa]  
 cf. /pesu]to/ → [pesuʝdo](動物名)
- b. ① /sʌ]ʌto/ → /sʌto/ → [sʌdo]  
 cf. /sʌ]ko/ → [sʌgo](立)
- ② /čʰa]ʌto/ → /čʰaato/ → /čʰato/ → [tʰado]  
 cf. /čʰa]ʌko/ → [tʰago](蹴)
- ③ /no:lla]to/ → /no:llaato/ → /no:llato/ → [no:llado]  
 cf. /no:lla]ko/ → [no:llago](驚)
- ④ /pʰjʌ]ʌto/ → /pʰjʌto/ → [pʰjʌdo]  
 cf. /pʰjʌ]ʌko/ → [pʰjʌgo](伸)
- ⑤ /kʷ]ʌto/ → /kʷʌto/ → [kʷʌdo]  
 cf. /kʷ]ʌko/ → [kʷʌgo](消)

그러나 활용의 경우에는 어미 초의 ‘ʌ’ 앞에서 어간 말의 ‘a’나 ‘ʌ’가 예외 없이 탈락한다. 다시 말하면, 어간이 ‘a’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미 초의 ‘ʌ’가 ‘a’로 교체된 다음에 어간 말의 ‘a’가 탈락하고 어간이 ‘ʌ’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미 초의 ‘ʌ’ 앞에서 어간 말의 ‘ʌ’가 탈락한다.<sup>4)</sup> 이러한 음운과정은 동일한 혀의 위치와 혀의 높이를 가지는 두 개의 모음소가 연속되는 경우에 모

음층들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하겠다.<sup>5)</sup> 이때의 어간 말 ‘a, ʌ, u’ 탈락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규칙은 해당 환경에 의 무적으로 적용된다.

- [V, + back, -round] → ∅ / X \_\_\_\_ ]<sub>Vst</sub> [V, -high, -low, + back, -round]Y  
 【활용의 경우, 어간 말의 ‘아, 어, 으’는 어미 초의 ‘어’ 앞에서 탈락한다.】

## 2.7. 활음소화규칙

한국어에서 활음소화란 ‘i’나 ‘o, u’로 끝나는 어간과 ‘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때에, 어간 말의 ‘i’는 ‘j’로, ‘o, u’는 ‘w’로 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음운과정은 활용에만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곡용에서는 ‘ʌ’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0a①②)에서 보듯이, 활용에서 어간 말 ‘o, u’의 활음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a’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면, 어간과 어미 사이에 ‘j’가 삽입될 뿐 어간 말 모음소의 활음소화는 일어나지

4) 이러한 음운과정은 어간이나 어미의 첫 음소가 어휘적 의미나 문법적 의미를 유지하는 기능부담을 최대로 가진다는 점과 崔明玉(1992: 83)에서 지적된 와 같이, 실제로 ‘i’나 ‘o, u’나 ‘u’로 끝나는 어간이 ‘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경우에 어미 초의 ‘ʌ’는 그대로 실현되는 반면 어간 말 모음소는 활음소화하거나 탈락한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된다.

5) 어간이 ‘a’로 끝나는 ‘(X)ha-’는 이 음운과정에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崔明玉(1982: 174-75, 1988: 62-64)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들 동사가 자음소나 ‘u’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어간 ‘(X)ha-’와 ‘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어간 ‘(X)h-’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음운과정의 예외가 아니다. 이들 동사의 음운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h{a-ε} ʌto/ → /hεʌto/ → /hεεto/ → [hε:do]

/h{a-ε} ko/ → /hako/ → [hago](立)

② /si:mh{a-ε} to/ → /si:mhε to/ → /si:mhεεto/ → /si:mhεto/ →

[ci:mhεdo], → /si:mh{a-ε} ko/ → /si:mhʌko/ → [ci:mhago](甚)

않는다.

- (10) a. ① /minki]a/ → [mingija, \*mingja](人名)  
 ② /jʌŋsu]a/ → [jʌŋsuja, \*jʌŋswa](人名)  
 ③ /kiho]a/ → [kihoja, \*kihwa](人名)
- b. ① /p<sup>hi</sup>]ʌto/ → [p<sup>hi</sup> do]/[p<sup>hi</sup> do]/[p<sup>hi</sup>ʌdo]  
 cf. /p<sup>hi</sup>]ko/ → [p<sup>hi</sup>go](發)  
 ② /i]ʌto/ → [jʌdo](戴)  
 ③ /či]ʌto/ → [tʃʌdo](負)  
 ④ /iki]ʌto/ → [igjʌdo]/[igiʌdo]/[igijʌdo]  
 cf. /iki]ko/ → [igigo](勝)  
 ⑤ /moi]ʌto/ → [mojʌdo](集)  
 ⑥ /tač<sup>hi</sup>]ʌto/ [taʃ<sup>hi</sup>ʌdo](傷)  
 cf. ① /po]ʌto/ → [pwa:do]/[poado]/[powado]  
 cf. /po]ko/ → [pogo](視)  
 ② /tu]ʌto/ → [twʌ:do]/[tuʌdo]/[tuwʌdo]  
 cf. /tu]ko/ → [tugo](置)  
 ③ /o]ʌto/ → [wado](來)  
 ④ /pak'u]ʌto/ → [pak w do]/[pak'uʌdo]/[pak'uwʌdo]  
 cf. /pak'u]ko/ → [pak'ugo](換)  
 ⑤ /pɛu]ʌto/ → [pɛwʌdo](學)

그러나 활용에서는 그 경우에 어간 말의 'i' 나 'o, u' 의 활음소화가 일어난다. (10b, c)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활음소화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eft[ \begin{array}{l} [V, + \text{high}, -\text{back}] \\ [V, + \text{back}, + \text{round}] \end{array} \right] \rightarrow [-\text{voc}] / X \text{ \_\_\_\_ }_{\text{vs}} [V, -\text{high}, -\text{low}, + \text{back}, -\text{round}] Y$$

【활용의 경우, 어미 초의 '어' 앞에서, 어간 말의 '이' 는 j로, 어간 말의 '오' 나

‘우’는 ‘w’로 된다.】

이 규칙은, (10 b②⑤)나 (10 c③⑤)에서 보듯이, 어간 말음절이 ‘i’나 ‘o, u’만으로 구성되거나(단, 어간이 2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그 앞 음절이 개음절이어야 함), (10 b③⑥)에서 보듯이, 어간 말음절이 ‘i’나 ‘o, u’로 끝나고 경구개 자음소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미 ‘- ʌY’ 앞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간 말음절이 ‘i’나 ‘o, u’로 끝나고 경구개자음소 이외의 자음소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미 ‘- ʌY’ 앞에서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3. 의무적·임의적규칙의 적용 한계와 그 대체 기제

지금까지 필자는 한국어에 존재하는 음운규칙 중 여섯 개의 의무적규칙과 한 개의 임의적규칙이거나 의무적규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들 규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들 규칙의 적용이 불가능한 여러 경우를 관찰하고 그 경우에 적용되는 대체 기제와 그 의미에 대해서 논의한다.

먼저 (11)의 자료를 보자. (11)에 제시된 동사는 모두 어간 말에 자음소군을 가지고 있다. 이 자료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이들 어간이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적용되는 음운규칙이다. 이때의 음운규칙은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이다. 자음소군단순화란 /VC<sub>1</sub>C<sub>2</sub>∥C<sub>3</sub>V/에서 어간 말의 C<sub>1</sub> 또는 C<sub>2</sub>가 탈락하는 것과 /V∥wC<sub>3</sub>/에서 어미 초의 ‘w’가 탈락한 다음에 /C<sub>3</sub>/에서 /l/가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음운과정은 음절 말에서 두 개의 자음소가 음성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음절구조 제약에 의한 것이다.

- (11) a. ① /hult<sup>h</sup>∥ko/ → /hulko/ → /{hulk'o, hulko}/ → [{mulk'o, \*mulgo}]  
 ② hult<sup>h</sup>∥nunta/ → /hulnunta/ → /{hullunta, \*hununta}/ →

[{ʌull nda, \*ʌun nda}]

③ /hult<sup>h</sup>]ni/ → /hulni/ → /{hulli, \*huni}/ → [{ʌuʌʌi, \*ʌuni}]

④ /hult<sup>h</sup>]so/ → /hulso/ → /{huls'o, \*huso}/ → [{ʌuls'o, \*ʌuso}]

cf. /hult<sup>h</sup>]ʌto/ → /hult<sup>h</sup>ʌto/ → [ʌult<sup>h</sup>ʌto](扱)

b. ① /{si:lh, sil?}]nuunta/ → /si(:)lnuunta/ → /{si(:)llunta, \*si(:)nuunta}/ → [{ei(:)llunda, \*ei(:)nuunda}]

② /{si:lh, sil?}]ni/ → /si(:)lni/ → /{si(:)lli, \*si(:)ni}/ → [ei(:)i, \*ei(:)ni]

③ /{si:lh, sil?}]so/ → /si(:)lso/ → /{si(:)lso, \*si(:)so}/ → [ei(:)lso, \*ei(:)so]

④ /{si:lh, sil?}]ko/ → /si(:)l{k<sup>h</sup>o, k'o}/ → [si(:)l{k<sup>h</sup>o, k'o}](載)<sup>6)</sup>

그런데 (11)에서 특히 주목되는 음운규칙은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음 소군단순화규칙이 적용된 결과인 (11a①,④)의 /hulko/, /hulso/와 (11b③)의 /si(:)so/에 적용되는 어미 초 'k'와 's'의 경음소화규칙이며, 다른 하나는 (11a②,③)의 /huln nta/, /hulni/와 (11b①,②)의 /si(:)ln nta/와 /si(:)lni/에 적용되는 어미 초 'n'의 유음소화규칙이다.

우리는 'l'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어미 초의 평음소에는 결코 경음소화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2.1 경음소화규칙 중 (4e) 참조). 그리고 어미 초의 'n'나 's'('u' 탈락 뒤에 남는 'n'나 's'도 포함) 앞에서 어간 말의 'l'에는 의무적으로 탈락규칙이 적용된다는 것도 보았다(2.2 유음소 'l' 탈락규칙 중 (5a,b) 참조). 이 두 가지 의무적규칙은(11a①,④)의 /hulko/, /hulso/와 (11b③)의 /si(:)lso/에, 그리고 (11a②,③)의 /huln nta/, /hulni/와 (11b①,②)의 /si(:)ln nta/와 /si(:)ln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hulko/, /hulso/와 /si(:)lso/에는 경음소화규칙이 적용되고 /huln nta/, /hulni/, /si(:)ln nta/와 /si(:)lni/에는 유음소화규칙이 적용된다.

6) 표준 한국어 동사 'sit-'의 재구조화형인 'si:lh-'과 'sil?-'에 대해서는 각주 2)를 참조하기 바람.

다음으로 (12)의 자료를 보자. (12)에 제시된 동사는 후음소 ‘h’나 ‘ʔ’로 끝나는 것이다. 이 자료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후음소가 탈락된 다음에 적용되는 음운규칙이다. 앞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성음소 사이에서 후음소가 탈락되고(2.3) 어간 말의 모음소와 유음소 뒤에서 어미 초의 개음절 ‘u’가 탈락한다(2.4)는 것을 보았다.

- (12) a. ① /nΛh]mjΛn/ → /nΛu mjΛn/ → [nΛu mjΛn]  
 ② /nΛh]u mjΛn/ → /nΛu mjΛn/ → /nΛΛmjΛn/ → [nΛ: mjΛn]  
 ③ /nΛh]mjΛn/ → /nΛu mjΛn/ → \*/nΛmjΛn/ → \*[nΛmjΛn]  
 cf. /nΛh]ko/ → /nΛk<sup>h</sup>o/ → [nΛk<sup>h</sup>o]( )  
 b. ① /kʷ:ʔ]u mjΛn/ → /kʷu mjΛn/ → [kʷ: mjΛn]  
 ② /kʷ:ʔ]u mjΛn/ → /kʷu mjΛn/ → \*/kʷmjΛn/ →  
 \*[kʷu mjΛn]  
 cf. /kʷ:ʔ]ko/ → /kʷ:k<sup>o</sup>/ → [kʷ:k<sup>o</sup>](긋-, 劃)  
 c. ① /alh]u mjΛn/ → /al u mjΛn/ → [aɾu mjΛn]  
 ② /alh]u mjΛn/ → /al u mjΛn/ → \*/almjΛn/ → \*[almjΛn]  
 cf. /alh]ko/ → /alk<sup>h</sup>o/ → [alk<sup>h</sup>o](痛)  
 d. ① /si:lh]u mjΛn/ → /sil u mjΛn/ → [ciɾu mjΛn]  
 ② /si:lh]mjΛn/ → /sil u mjΛn/ → \*/silmjΛn/ → \*[ci:lmjΛn]  
 cf. /si:lh]ko/ → /si:lk<sup>h</sup>o/ → [ci:lk<sup>h</sup>o](신-, 載)

그러한 사실을 따르면 (12)에 제시된 기저형에는 모두 후음소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는 다시 어미 초 개음절 ‘으’ 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후음소탈락규칙이 적용된 결과인 (12a, b)의 /nΛu mjΛn/과 /kʷu mjΛn/, (12c, d)의 /al u mjΛn/과 /sil u mjΛn/에는 어미 초 개음절 ‘u’ 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12a③, b②, c②, d②)에서 보듯이, 그 규칙이 적용되면 그 결과는 실제 음성형과 다르다. 오히려 그 경우에 어미 초 개음절 ‘u’는 그대로 실현되거나, 어간 말이 모음소로 끝나면, 임의적으로 어간 말 음절 모음소에 완전순행동화한다.

이번에는 (13)의 자료를 보자.

- (13) a. ① /nah]Δto/ → /nahato/ → /naato/ → [naado]  
 ② /nah]Δto/ → /nahato/ → /naato/ → \*/nato/ → \*[nado]  
 cf. /nah]ko/ → /nak<sup>h</sup>o/ → [nak<sup>h</sup>o](産)  
 b. ① /na:ʔ]Δto/ → /naʔato/ → /naato/ → [naado]  
 ② /na:ʔ]Δto/ → /naʔato/ → /naato/ → \*/nato/ →  
 \*[nado](낫-, 癩)  
 c. ① /nΛh]Δto/ → /nΛato/ → [nΛado]( )  
 ② /nΛh]Δto/ → /nΛato/ → \*/nato/ → \*[nΛado]

(13a, b)의 자료들에는 먼저 어미 초 ‘Λ → a’ 화규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13c)의 자료에는 바로 어간 말 후음소탈락규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그 결과인 /naato/((13a, b))나 /nΛato/((13c))에는 각각 어간 말 ‘a’ 탈락규칙이나 ‘Λ’ 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탈락규칙은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음성으로 실현된다. 그 경우에, 만약 그 규칙이 적용되면, (13a②, b②)와 (13c②)에서 보듯이, 그 결과는 실제 음성형과 다르다.

끝으로 (14)의 자료를 보자. (14)의 자료에는 먼저 후음소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 결과인 (14a)의 /kuΔto/에는 어간 말의 ‘u’ 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14b~c)의 /iΔto/, /čiΔto/, /puΔto/에는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규칙은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음성으로 실현된다. 그 경우에, 만약 어간 말의 ‘u’ 탈락규칙이 적용되면, 그 결과는, (14a)의 ②에서 보듯이, 실제 음성형과 일치하지 않으며,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되면, 그 결과는, (14b~d)의 ②에서 보듯이, 실제 음성형과 일치하지 않는다.<sup>7)</sup>

7) /X(i, u, o)h-/로 구성된 어간과 ‘Λ’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에는 단어에 따라, 방언에 따라 어간 말의 후음소가 탈락한 다음에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중성과 종성을 가진 동사라 하더라도 /noh]Δto/(放)는 [noado]나 [nwa:do]로 실현되지만 /čo]Δto/(好)는 [ʃoado]로



- (14) a. ① /ku:?』 $\Delta$ to/ → /ku $\Delta$ to/ → [ku $\Delta$ do]  
 ② /ku $\Delta$ to/ → /ku $\Delta$ to/ → \*/k $\Delta$ to/ → \*[k $\Delta$ do]  
 cf. /ku:?』ko/ → /ku:k o/ → [ku:k'o](긋-, 劃)
- b. ① /i:?'』 $\Delta$ to/ → /i $\Delta$ to/ [i $\Delta$ do]  
 ② /i:?'』 $\Delta$ to/ → /i $\Delta$ to/ → \*/j $\Delta$ to/ → \*[j $\Delta$ do]  
 cf. /i:?'』ko/ → /i:k'o/ → [i:k'o](잇-, 連)
- c. ① /či:?'』 $\Delta$ to/ → /č $\Delta$ to/ → [tʃi $\Delta$ do]  
 ② /či:?'』 $\Delta$ to/ → /č $\Delta$ to/ → \*/čj $\Delta$ to/ → \*/č $\Delta$ to/ → \*[tʃ $\Delta$ do]  
 cf. /či:?'』ko/ → /či:k'o/ → [tʃi:k'o](짓-, 作)
- d. ① /pu:?'』 $\Delta$ to/ → /pu $\Delta$ to/ → [pu $\Delta$ do]  
 ② /pu:?'』 $\Delta$ to/ → /pu $\Delta$ to/ → \*/pw $\Delta$ to/ → \*[pw $\Delta$ :do]  
 cf. /pu:?'』ko/ → /pu:k'o/ → [pu:k'o](붓-, 腫)

이제까지 우리는 한 번 탈락의 음운규칙을 적용받은 결과는 의무적규칙이 나 임의적규칙(어간 말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은 제외)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도 거기에는 그 규칙들이 적용될 수 없는 여러 예들을 보았다. 어쩌서 탈락규칙이 적용된 결과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규칙이나 임의적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도 그들 규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 경우에 대체 기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단계이다.

그 답을 찾는 데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미 초 폐음절 'u' 탈락규칙이다. 2.5에서 우리는 활용과 곡용에서 /pu:l』un/(사람)(吹)과 /tu:l』un/(野)이 동일한 음운론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유음소 뒤에서 어미 초 폐음절의 'u' 탈락규칙이 활용에서는 적용되는데 곡용에서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동일한 음운론적 조건에서 어미 초 개음절의 'u' 탈락규칙은 활용과

만 실현될 뿐 결코 [tʃw $\Delta$ :do]로 실현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표준어 /짓』어도/(作)나 /붓』어도/(腫)는 경북의 동북부 반촌지역어에서는 [tʃ $\Delta$ ^do]나 [p $\Delta$ ^do]로 실현된다[ = 하강조(HL)].

곡용에서 모두 적용되는데 왜 어미 초 폐음절의 ‘u’ 탈락규칙은 곡용에서 적용이 불가능한가? 이 물음에 대해서 그동안 몇 가지 해결안이 제시되었다.<sup>8)</sup> 그러나 어떤 해결안도 ‘왜?’에 대한 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에 대한 필자의 답은, 崔明玉(2001: 324-45의 주 1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간 명사의 의미 유지를 위한 것, 달리 말하면 어간 명사의 어휘적 의미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tu:l/ um/ (野)의 경우, ‘l’ 뒤에서 ‘u’가 탈락하면 /tu:l/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자음이 음절 말에서 실현될 수 없는 표면음절구조의 제약 때문에 /tu:n/이 되고 그것이 [tu:n]으로 실현된다. 그렇게 되면, 어미 [n]을 제외한 [tu:]는 ‘野’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 /tu:l/이 ‘野’의 의미를 유지하려면 어미 초 폐음절의 ‘u’가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sup>9)</sup>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2.2에서 확인된 어간 말 유음소 탈락규칙과 2.6에서 확인된 어간 말 ‘a, ʌ, u’ 탈락규칙, 그리고 2.7에서 확인된 활음소화규칙이다. 이들 음운규칙은, 모두 형태론적 제약을 가지는 것인데, 활용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곡용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무엇이 그러한

8) 金完鎭(1972: 279)는 곡용어미와 활용어미의 어미 초 폐음절 ‘u’를 각각 긴장모음(tense vowel)과 이완모음(lax vowel)으로 구분하여 긴장모음인 ‘u’는 ‘l’ 뒤에서 탈락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李秉根(1981: 230-31)은 패러다임의 규칙성을 어느 정도로 전제한 음절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곡용에서는 어간 말 ‘l’ 뒤에서 폐음절 ‘u’가 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姜昶錫(1985:)는 표준 한국어 어미 ‘-un’의 기저형을 곡용어미의 경우는 /-un/이고 활용어미의 경우는 /-n/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활용의 경우에는 ‘u’ 탈락이라는 음운 과정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 宋喆儀(1991: 291-93)은 한국어의 체언어간들은 가능한 한 교체를 실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미 초 폐음절 ‘u’가 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9) ‘패러다임의 규칙성’이나 체언어간들이 ‘가능한 한 교체를 실현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모두 어간 말의 ‘l’가 탈락함으로써 어간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안은 어간의 의미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은 되지만 그 자체가 ‘왜?’에 대한 답은 될 수 없다.

차이를 만드는가? 이 점에 주목하면, 우리는 곡용과 활용에서 음운규칙의 적용에 가해지는 몇 가지 중요한 제약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어간 말 유음소탈락규칙부터 보기로 한다. 필자는 특히 그 중에서 (5c)의 자음소군단순화에 의한 유음소 탈락을 음절구조 제약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경우에 음절구조 제약에서 어간 말의 'l'가 탈락되는 것은 '-umnitə'와 '-tun'이 가지고 있는 '존칭 서술 종결 표시'와 '과거시제 관형사형 표시'라는 문법적 의미를 'u'가 탈락된 뒤의 어미 'm'와 'n'가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다음으로 어간 말 'a, ʌ, u' 탈락규칙의 경우, 이 음운규칙이 활용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곡용에서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2.6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어간 명사가 가지는 어휘적 의미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활용의 경우와 대조한다면, 호격(呼格) 표시 어미 'a'는 'u'로 교체하지 않으므로, /čopɕaʌ/에서는 어간 말 모음소 'u'가 탈락할 수 없다. 그러면 모음소 충돌을 막기 위해 활음소 j가 첨가되어 [tʃopɕaja]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jʌčaʌ/와 /pesuʌ/에는 어미 초의 'a' 앞에서 어간 말의 'a'와 'u'를 탈락시키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들 규칙이 적용된다면, 결과는 각각 [jʌŋčə]와 [pesə]가 될 것이다.

이들 음성형은 어간형의 불투명과 곡용의 불균형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예를 들어, 명사 /pesu/가 어미 '-a, to, -man'과 통합할 때의 음성형이 각각 [pesuʌja], [pesuɪdo], [pesuɪman]와 [pesa], [pesuɪdo], [pesuɪman]를 생각해 보자. 앞의 예에서는 모든 음성형에 어간 'pesu'가 공존하며 이 어간을 유지하면서 곡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뒤의 예에서는 음성형에서 추출될 수 있는 어간이 'pes'인지 'pesa'인지 'pesu'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어느 하나의 어간을 기준으로 곡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뒤의 예 중 어미 '-a'와 통합된 음성형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곡용에서 어간 말 'a, ʌ, u' 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칙이 적용되는 대신 j 첨가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간 말 모음소

탈락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간형의 불투명과 곡용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간의 어휘적 의미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활음소화규칙의 경우, 이 음운규칙은 활용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거나 임의적으로 적용되지만 곡용에서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예를 들어, /minkja/ , /jaŋsu/ , /kiho/에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된다면, 각각 [mingja], [jaŋswa], [kihwa]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어간형이 불투명하게 되며 그 결과 어간의 어휘적 의미가 상실된다. 이 점에서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도 곡용에서는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대신 ㄹ첨가규칙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어간의 의미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활용에서와는 달리, 곡용에서는 어간말의 유음소 및 모음소 탈락규칙이나 어간말 모음소의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곡용어간이 자립형태소이기 때문이다. 자립형태소는 그 자체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음성형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음운규칙의 적용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의 음성형을 파괴시키는 음운규칙의 적용은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자음소군단순화규칙((4 a ③))이나 자음소 교체규칙((4 a ①②))은 자립형태소 그 자체의 음성형을 유지시키는 곡용어간의 어휘적 의미를 유지시키는 범위 내에 드는 규칙이므로, 곡용어간에는 그들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유음소탈락규칙이나 활음소화규칙은 자립형태소 그 자체의 음성형을 파괴시키는 곡용어간의 어휘적 의미를 파괴시키는 규칙이므로, 곡용어간에는 그들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곡용에서의 음운규칙은 어간의 어휘적 의미를 유지시키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sup>10)</sup>

10) ‘아드님, 따님’이나 ‘부삽’과 같은 일부 어사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들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된 결과 형태소 구조규칙(MS rule)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별님, 달님’ 등이나 ‘물소리, 말소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형태소경계에서나 대부

이와는 달리, 활용에서는 어간 말의 유음소탈락규칙, 모음소탈락규칙, 어간 말 모음소의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된다. 이것은 활용어간이 의존형태소이기 때문이다. 의존형태소는 그 자체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의존형태소는 다른 의존형태소가 통합해야 독립된 의미를 가진다. 바꾸어 말하면, 활용어간은 활용어미와 통합해야 독립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활용어간과 활용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에, 어간말의 형태음소나 어미초의 형태음소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가 음소배열제약으로 교체되거나 탈락되기도 하며, 그 두 형태음소가 축약되기도 하고, 두 형태음소 사이에 새로운 음소가 첨가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의존형태소에는 그 자체의 음성형이 유지될 수 없는 음운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자음소군단순화규칙((6b), (11))이나 자음소교체규칙((4b))은 물론 유음소탈락규칙, 모음소탈락규칙, 어간말 모음소의 활음소화규칙이 활용어간에 적용될 수 있다. 곡용어간에서와는 달리, 활용어간에는 활용어간 그 자체의 음성형을 파괴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11a②~④)와 (11b①~③)에서 보듯이, 어간에 탈락규칙이 두 번 적용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활용어간의 어휘적 의미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용의 경우에도 활용어간의 어휘적 의미를 유지시키는 범위 내에서 음운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은 곡용에서와 동일하다.

위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11)~(14)의 자료에서 본 규칙 적용의 한계와 그 대체 기제의 의미를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11)의 자료에서, 어간 말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의 적용 결과인 /hulko/, /hulso/, /silso/, /huln nta/, /hulni/, /siln nta/, /silni/에서, /hulko/는 더 이상 음운규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변이음규칙인 유성음화규칙이 적용되어 [mulgo]로 실현될 수 있고, /hulso~/ /silni/는 어미 초의 'n' 나 's' 앞에서 어간 말 'l' 탈락규칙이 적용되어 각각 [muso], [ciso], [munuŋda], [muni], [cinuŋda], [cini]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hulko/, /hulso/, /silso/에는 경음소화규칙이 적용되어 각각 [mulk'o],

---

분의 합성명사에서는 동일한 음운론적 조건에서도 명사의 어간 말 'l' 는 탈락되지 않는다.

[ʌuls'o], [eils'o]로 실현되며 /hulnunta/, /hulni/, /silnunta/, /silni/에는 어미 초 'n'의 유음소화규칙이 적용되어 각각 [mullunda], [muʌʌi], [ei(:)llunda], [ei(:)ʌʌi]로 실현된다.

여기서 우리는 제시된 자료들이 어간 말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을 적용받은 뒤의 음운과정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왜 그 자료들이 그대로 실현되거나 유음소탈락규칙을 적용받아서 안 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왜 그 자료들이 경음소화규칙이나 어미 초 'n'의 유음소화규칙을 적용받는가 하는 것이다. 앞의 물음에 대해서는 어간형이 불투명하게 됨으로서 어간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음성형의 분석을 통해서 청자가 상정할 수 있는 어간형은 각각 /hu-/ , /si-/나 /hul-/ , /sil-/ (어미 초의 'n' 앞에서 'l'가 탈락될 수 있으므로)인데, 청자는 이들 어간형으로부터 원래의 어간형 'hulth-(扱)'이나 'silh-(載)'을 상정할 수 없으며 그 결과 그들 어간형의 의미를 추정할 수 없다.

한편 뒤의 물음에 대해서는 어간형이 투명하게 됨으로서 청자는 원래의 어간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그 어간형의 의미를 추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어간 말 'l' 뒤에서 어미 초의 평음소는 유성음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 음성형에는 경음으로 실현되고 있다거나 어미 초의 'n' 앞에서 어간 말의 'l'는 탈락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실제 음성형에는 어간 말의 'l' 뒤에서 어미 초의 'n'가 유음으로 실현되고 있는 사실은 그때의 어간이 /hul-/이나 /sil-/과 같이 하나의 유음소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며 그 결과 청자는 그것들의 어간형이 /hulth-/이나 /silh-/ 또는 /sil?-/임을 쉽게 상정하여 그들 어간형의 의미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12)~(14)의 자료에서, 어간 말 후음소탈락규칙을 적용받은 (12)의 /nʌumjan/, /kuumjan/, /alumjan/, /silumjan/과 (13)의 /naato/, /nʌato/와 (14)의 /kuato/, /iato/, /čiato/, /puato/에는 각각 어미 초 'u' 탈락규칙이나 어간 말 'a, ʌ, u' 탈락규칙이나 어간 말 'i'나 'u'의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음운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도 (11)의 자료에 대한 것과 동일한 두 가지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제시된

자료들은 왜 어간 말 후음소탈락규칙을 적용받은 뒤에 위에 제시한 탈락규칙이나 활음소화규칙을 적용받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시된 자료들은 왜 탈락규칙이나 활음소화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현되는가 하는 것이다. 각각의 물음에 대한 답은 (11)의 자료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과 동일하다.

만약 제시된 자료들이 어간 말 후음소탈락규칙을 적용받은 뒤에 위에 제시된 탈락규칙이나 활음소화규칙을 적용받는다면, 그 결과로 실현될 수 있는 음성형은 각각 [nɒmjɒn], [kumjɒn], [almjɒn], [eilmjɒn]과 [nado], [nɒdo]와 [kɒdo], [jɒdo], [čɒdo], [pɐɒ do]가 될 것이다. 그 경우에 그들 음성형에서 분석되는 어간형은 각각 /nɒ-/ , /km-/ , /al-/ , /sil-/과 /na-/ , /nɒ-/와 /kɐ-/ , /i-/ , /či-/ , /pu-/가 되는데, 그들 어간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시된 자료들의 어간형이 가지는 의미와 다르다. 이와는 달리, 제시된 자료들이 위에 언급된 탈락규칙이나 활음소화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실현된다면, 그 음성형은 의무적으로 탈락되어야 할 어미 초의 'u' 나 어간 말의 'a, ɒ, u' 를 가지고 있으며 의무적이거나 임의적으로 활음소화해야 할 어간 말의 'i' 나 'u' 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서 청자는 그들 음성형에서 분석되는 어간형들이 단순히 /XV-/나 /XI-/이 아니라 V나 'i' 뒤에는 [+voc]를 가지는 음소들 사이에서 탈락하는 자음소 하나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한 추정에서 청자는 그 자음소가 후음소임을 알게 된다. 그 결과 어간형이 투명하게 되므로 그들 어간형의 실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11)~(14)의 자료에서 한 번 탈락의 음운규칙을 적용받은 결과는 의무적규칙이나 임의적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도 거기에는 그 규칙들이 적용될 수 없는 사실 즉, '음운규칙 적용의 한계'가 생성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그 경우에 그대로 실현되거나 예상되는 것과는 상반되는 규칙이 적용되는 사실 즉, '음운규칙 적용의 한계에 대한 대체 기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청자가 음성형을 통해서 어간이나 어미의 기저형을 추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간의 어휘적 의미나 어미의 문법적 의미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 4.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 음운론에 적용되는 몇 가지 의무적규칙과 임의적 규칙에 대해서 논하고 그러한 규칙이 음운탈락의 과정을 거친 결과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그때에는 더 이상 음운규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예상될 수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와 그 대체 기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에서 경음소화나 유음소탈락, 후음소탈락, 어미 초 'ㄹ' 탈락, 어간 말 'a, ʌ, u' 탈락 등의 규칙은 음운론적 조건만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음운규칙이며, 활음소화규칙은 음운론적 조건만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적용되거나 임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음운규칙이다. 그런데 3에서 본 것과 같이, 먼저 탈락규칙이 적용된 결과에는 위에 제시된 의무적 음운규칙이나 임의적 음운규칙이 적용될 환경이 구비되어 있어도 그러한 음운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더 이상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경우에 예상되는 것과는 상반되는 음운규칙이 적용된다.

[2] 일반적으로 음운규칙은 의미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어의 모든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음운규칙은 궁극적으로 어간이나 어미의 '의미'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3] 어간의 어휘적 의미와 어미의 문법적 의미의 유지 여부는 탈락과 관련된다. 어간의 경우, 탈락은 자립형태소인 곡용어간과 의존형태소인 활용어간(여기서 '계사'는 논의에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어간 말이 자음소군인 경우에 곡용어간과 활용어간에는 자음소탈락규칙이 한 번만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어간의 어휘적 의미가 유지된다.

(2) 어간 말이 하나의 자음소(후음소)나 유음소나 모음소인 경우에, 그들 어



간 말음소가 탈락하거나 활음소화가 가능한 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경우, 곡용에서는 그들 음운규칙이 적용되지 못한다. 그러나 활용에서는 그 경우에 그들 음운규칙은 의무적으로 적용되거나 임의적으로 적용된다.

(3) 곡용과 활용에 존재하는 음운규칙의 적용 한계와 그 대체 기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곡용에서, 음운규칙의 적용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폐음절어미 초 ‘w’ 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8b), 어간 말모음소 ‘a’나 ‘u’ 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9a), 어간 말모음소의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10a)가 그것이다. 이 경우에 어간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기제는 그들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활용에서, 음운규칙의 적용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의 적용 결과로 다시 어미 초 평자음소의 유성음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의 적용 결과로 다시 어간 말 ‘l’ 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어간 말 후음소탈락규칙의 적용 결과로 다시 어미 초 ‘w’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어간 말 후음소탈락규칙의 적용 결과로 다시 어간 말 모음소 ‘a, ʌ, u’ 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어간 말 후음소탈락규칙의 적용 결과로 다시 어간 말 모음소의 활음소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경우에 어간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기제는 다음과 같다. 즉, ㉠의 경우, 어미 초 평자음소의 경음소화규칙이 적용되며, ㉡의 경우, 어미 초의 자음소가 ‘n’이면 ‘n’의 유음소화규칙이 적용되고 어미 초의 자음소가 ‘s’이면 ‘s’의 경음소화규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의 경우, 더 이상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어미 초 ‘w’의 완전순행동화규칙이 적용되며, ㉣과 ㉤의 경우, 더 이상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姜昶錫(1985), 「活用과 曲用에서의 形態論과 音韻論」, 『울산어문논집(울산대)』

2, 47-67.

金完鎮(1972),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爲하여: 이른바 長母音의 境遇」, 『東亞文化(서울대)』 11, 273-299.

宋喆儀(1991), 「國語 音韻論에 있어서 體言과 用言」,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민음사, 서울, 278-296.

이병근(1981), 「유음 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174, 223-46.

鄭 國(1980), *Neutralization in Korean: A Functional View*, Ph.D. Dissertation, Texas University.

崔明玉(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영남대출판부, 대구.

崔明玉(1988),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li-, lə-, ε(jə)-, h- 變則動詞를 中心으로」, 『어학연구』 24-1, 41-68.

崔明玉(1992), 「19世紀 後期國語의 研究: 母音音韻論을 중심으로」, 『韓國文化(서울대)』 13, 55-90.

崔明玉(2001), 「‘-으Y’ 류 어미의 사전학적 표시와 언어학적 표시에 대하여」, 『韓日語文學論叢』, 太學社, 서울, 309-329.

원고 접수일: 2005년 4월 15일

게재 결정일: 2005년 6월 8일

**ABSTRACT**

---

## The Alternative Mechanisms for the Limit of Rule Application in Korean Phonology

Choi, Myung-Ok

In Korean phonology, once the stem final consonant deletion rule is applied, no other obligatory rules can be applied. For example, when verb stem /hult<sup>h</sup>-/ 'hackle' is combined with interrogative ending /-ni/ 'is it?',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rule must be applied and consequently /hul ni/ is derived. After this application, the 'l' deletion rule, which is obligatorily applied in front of initial 'n', never be applied. Firstly, I define this case as 'the limit of rule application'. In substitute for 'l' deletion rule, the 'lateralization rule' is applied, and so the derived realization comes as [ʌuʌʌi](←/hulli/). Secondly, I define this case as 'the alternative mechanism for the limit of rule application'. The 'limit of rule application' occurs when rule application affects the lexical meaning of stem or the grammatical meaning of ending if applied, and then 'the alternative mechanisms' works as not applying any rules or applying rules unexpected. This alternative mechanisms help the listener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underlying representation and surface representation, and to assume the real underlying representation without changing any meaning of stems and endings.

